



〈전대운〉

## 영화 '킹콩을 들다' 촬영지 보성

# 국가대표 역도 패밀리가 뒸다

내달 2~15일까지 하계 전지훈련 ... 사재혁·전대운 선수 등 20명 참여

국내 최초의 역도 영화 '킹콩을 들다'의 촬영지 보성에 진짜 '역도 패밀리'가 뜬다. 남자역도 국가대표팀이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 보성에 여름전지훈련캠프를 차린다. 대표팀 이형근(46) 감독은 "지난 6월 선발전 이후 계속된 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풀고 팀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하계캠프를 결정했다"면서 "휴식도 필요하지만 훈련은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시설·음식·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장소를 보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 '킹콩을 들다'로 팬들의 관심을 받았던 '녹차의 고향' 보성이 휴가철 피서 인파에다 역도스타들의 출현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월 역도 상비군(40명)에 이은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으로 보성이 최적의 역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팀이 보성을 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태릉선수촌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다목적트레이닝장이 있기 때문이다. 트레이닝장은 대표팀들이 몸(?)만 와서 손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훈련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음식이다. 육류·해산물·나물

등 풍부한 먹거리와 맛갈스런 전라도 음식이 식성 좋은 선수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간 훈련으로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말 그대로 공기 좋고 물 좋은 자연조건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이형근 감독과 고광구(39·현 광주은행 감독) 코치가 광주·전남 출신이라는 점도 장소 선택에 작용했다.

강진이 고향인 이 감독은 광주체육고(옛 전남체육고)와 한국체육대를 졸업하고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고와 조선대 출신 고 코치는 10년간(1990~1999) 태극마크를 달면서 91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위·93년 세계선수권 3위 등 한국역도 발전에 일조했다.

이 감독·고 코치 외에도 선수들 중에는 완도고 출신 지훈민(25·고양시청)과 팀 막내 전대운(정광고 2년)이 광주·전남 출신으로 이번 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

2주간 머무는 대표팀은 월·수·금요일엔 오전 10~12시, 오후 3시 30분~6시까지 기술훈련을 실시하며 화요일과 토요일엔 오후와 오전

에 각각 한차례씩 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엔 자유시간으로 낚시 혹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표가 짜여졌다. 고 코치는 "오는 10월 전국체전과 11월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만능은 태릉선수촌에 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표팀 식단의 메뉴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지만 1인당 아침 1만원·점심 2만원·저녁 3만원 상당의 다양한 '밥상'이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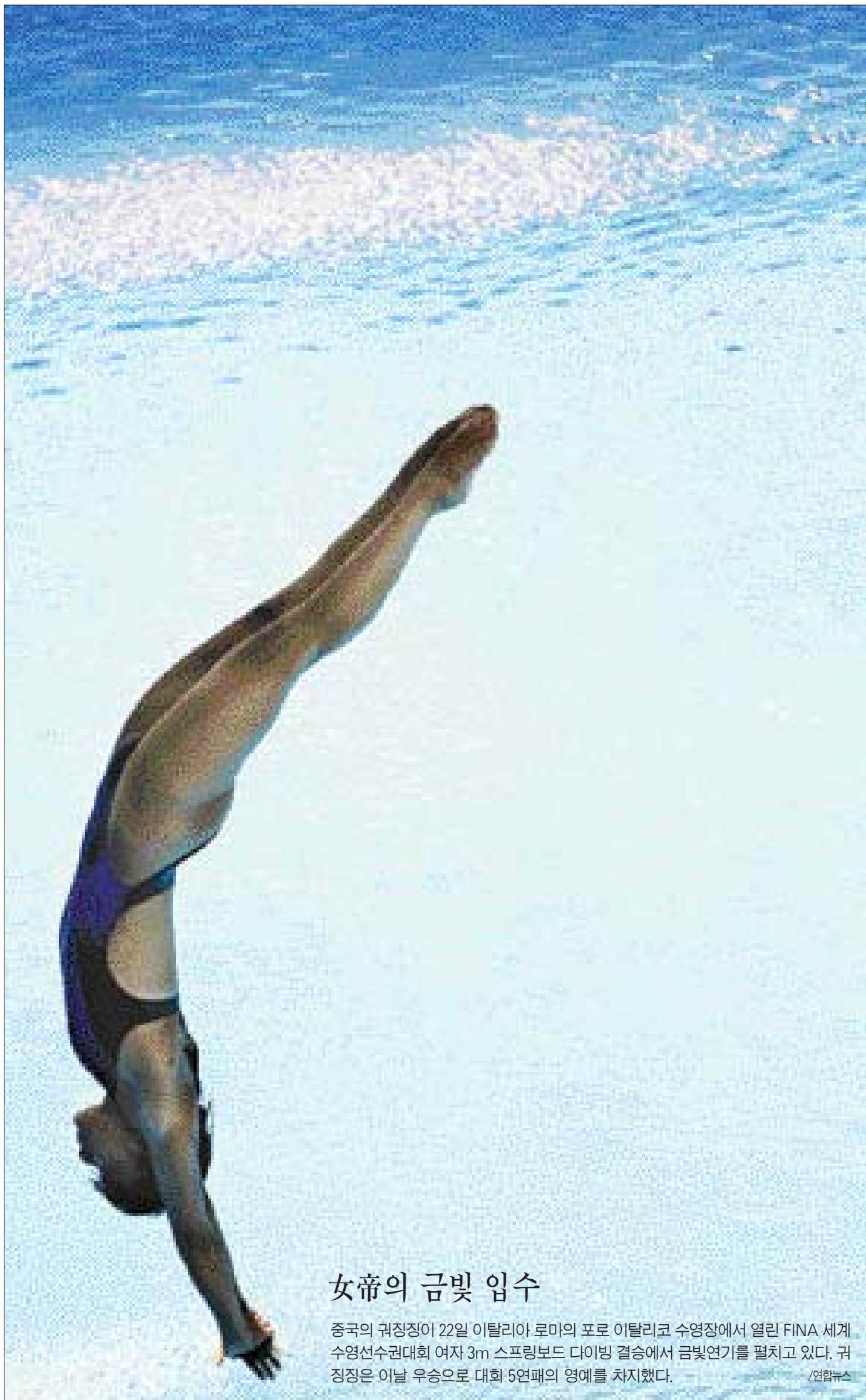
한편 보성군은 대표팀의 훈련 기간 중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숙소와 훈련장 이동에 이용할 25인승 버스와 훈련 중 마실 녹차 음료를 모두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또한 대표팀의 보성행에 김용철(49) 보성군청 역도 감독의 입김도 작용했다. 이 감독의 선배인 김 감독은 대표팀이 머무는 동안 편하고 안전하게 훈련 할 수 있도록 매니저(?)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은 "대표팀이 불편한 점 없이 운동하고 보성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재혁〉



### 女帝의 금빛 입수

중국의 귀정징이 22일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아로 수영장에서 열린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3m 스프링보드 다이빙 결승에서 금빛연가를 펼치고 있다. 귀정징은 이날 우승으로 대회 5연패의 영예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박태환, 자유형 400m 기록 추이

- 2005년 3월29일 동아수영대회	3분50초37
- 2005년 10월19일 전국체전	3분50초16
- 2005년 11월 6일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3분48초71
- 2006년 8월20일 범태평양대회	3분45초72 (아시아신기록)
- 2007년 3월25일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	3분44초30 (아시아신기록)
- 2008년 4월18일 동아수영대회	3분43초59 (아시아신기록)
- 2008년 8월 9일 베이징올림픽(예선)	3분43초35
- 2008년 8월10일 베이징올림픽(결승)	3분41초86 (아시아신기록)



## 박태환 400m 세계新 주인될까

“7년 묵은 3분40초08 소프기록 깨겠다”  
26일 로마 세계수영선수권 금물살 도전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은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려고 출국하면서 “세 종목 모두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 그리고 1,500m에 출전한다. 자유형 400m에서는 2007년 멜버른 세계대회와 2008 베이징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고, 200m에서는 멜버른 대회 동메달,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은 26일 오후(한국시간) 자유형 400m 예선을 시

작으로 다시 한번 세계 제패에 도전한다. 박태환은 현재 자유형 400m 우승은 물론 7년 묵은 세계 기록까지 깨뜨릴 유력한 후보다.

자유형 400m 세계 기록은 은퇴한 '인간 어뢰' 이안 소프(호주)가 2002년 7월30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영연방대회 때 작성한 3분40초08가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박태환의 최고 기록은 베이징올림픽 우승 때 세운 아시아신기록 3분41초86으로 소프에게는 1.78초 뒤진다. 최근 수영 전문 온라인매치 스왈뉴스닷컴에 '소프와 해켓의 시대는 막을

내리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첨단 수영복에 덕에 이번 로마 대회에서는 세계 기록이 양산될 것이며 현역에서 물러난 소프와 '장거리 자유형의 황제' 그랜트 해켓(이상 호주)이 가진 최고 기록도 깨질지 모른다는 내용이다.

박태환은 그동안 자유형 400m 개인 최고 기록을 매우 빠르게 줄여왔다.

2005년 3월 동아수영대회에서 2분50초37에 레이스를 마쳐 한국철이 갖고 있던 종전 한국 기록(3분53초55)을 3초 넘게 줄인 박태환은 그해 11월 마카오 동아시아게임에서 3분48초71에 터치패드를 찍으며 3분50초대 벽을 무너뜨렸다.

2006년 8월 범태평양대회에서는 3분45초72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 ‘다이빙 여제’ 귀정징 사상 첫 5연패

### 세계수영선수권 3m 스프링보드

‘다이빙 여제’ 귀정징(28·중국)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상 첫 5회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귀정징은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아로 고향

렉스에서 끝난 2009 세계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합계 388.2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346.45점을 얻은 2위 에밀리에 헤이먼스(캐나다)를 여유 있게 제쳤다.

귀정징은 이번에 금메달을 따면서 2001년

후쿠오카(일본) 대회부터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인 종목에서 5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귀정징은 지난 2007년 멜버른(호주) 대회까지 4회 연속 2관왕(3m 스프링보드 및 싱크로다이빙)을 차지했다.

2004 아테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도 2회 연속 2관왕에 올랐던 귀정징은 세계 최강의 실력 못지않게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스포츠 스타다. /연합뉴스

### KIA 양현종 올스타 출전

올스타전 동군 엔트리가 한 명 늘어나면서 투수 양현종이 서군 올스타에 선발됐다. 22일 동군 사령탑을 맡은 김성근 감독이 부상중인 포수 김민호(롯데)와 정상호(SK)를 대신해 삼성 채상병과 두산 최승환의 출전을 요청했다.

김민호는 베스트로 선정된 만큼 잠시 경기에 출전할 계획이라 동군 엔트리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됐다. 이를 전해들은 서군 김민

식 감독이 양현종의 참가를 요청하면서 KIA 올스타는 총 9명으로 늘었다.

### KIA 손영민 6월 MVP

KIA 타이거즈의 손영민(사진 오른쪽)이 22일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 앞서 밝은안과 21이 시상하는 월간 MVP를 받았다. 손영민은 6월 한달간 1패4홀드 3.86의 평균자책점으로 팀 승리의 가고 역할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